

(발제1)

## 민중에게 전해준 교훈과 위안의 메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 이 화

###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토정비결』

예전에는 설날만 되면 집안 식구나 동네 사람들이 용기종기 모여 앉아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았다. 이런 모습은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라고 할 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이란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장차 행운이 닥쳐올지 불행이 밀려올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농사짓는 사람은 흉년이 들지, 밭집장수는 장사수가 좋을지, 또 돌림병이 돌아 급작스레 죽지나 않을지, 자녀의 혼인에 어떤 가문의 아들·딸을 택할지 등 모든 일이 궁금할 뿐이다. 이리하여 『토정비결』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거나 양법(禳法, 잡귀를 물리치는 일)을 쓰는 일 따위를 찾기도 했다.

이것을 보는 법은 간단하지만, 순 무식쟁이는 못 본다. 집안이나 동네에서 글을 조금 깨친 사람이 주로 보아주었다. 남들이 보아줄 적에는 ‘복채’를 내야 효험이 있다고들 생각했다.

필자도 어릴 적에 글을 좀 읽어서 설이 닥치는 정초에는 『토정비결』꺼내 보아주었다. 서울 변두리에 살 적에 어머니가 동네에 나가 “우리 아들이 『토정비결』을 잘 본다”고 선전을 한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늙고 젊은 동네 부인들이 날을 잡아 우리 집 좁은 방에 몰려와 뻑뻑이 들어찼다. 나는 제법 목청을 돋우어 풀이를 해주었다.

그러면 부인들은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나 직업적 ‘꾼’이 아니기 때문에 복채는 받지 않고 무료봉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모두 가고 나면 요 밑이나 방구석에 얼마 안 되는 돈들이 놓여 있었다. 복채를 내는 것이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자 효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채를 놓고 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영향을 미치는 『토정비결』은 어떤 것이며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일까? 먼저 지은이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나 좋을 대로 살리라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1517~78)은 조선 중엽에 한산 이씨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래 보령 출신이었지만 어릴 적에 벼슬살이를 하는 만형 이지번을 따라 서울에 와 글공부를 했다. 광릉에 있을 적에는 몸을 돌보지 않고 공부에 심취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몸이 상할까 걱정하여 등불 기름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도끼를 들고 관솔을 따다가 불을 피워놓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그는 경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백가에도 통달했다 한다. 그러나 과거공부는 통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과거를 보아 출세하라고 성화를 부리면 마지못해 과거장에 나가서도 과거 글을 짓지 않고 나오거나 지어놓고 내지 않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런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제각기 좋아하는 바가 있소. 나는 나 좋을 대로 살 것이외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문, 지리, 의약 등과 운수 보는 책, 점치는 책 같은 것에 열중했다. 얼마만큼 공부를 마치고는 지팡이 하나 짚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이이, 성혼 같은 사람들과 사귀었고, 지방에서는 지리산 밑에 사는 조식, 성운 같은 학자들과 어울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언젠가는 학문을 더욱더 다지기 위해 개성 화담으로 서경덕을 찾아갔다. 화담 선생으로 불리는 서경덕은 송악산 밑 화담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세상일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 도인이었다. 이지함은 화담 옆에 방을 얻어 서경덕에게서 제대로 학문을 익히려 했다.

어느 날 밥을 붙여먹고 있는 집주인이 장사를 나갔다. 그러자 헌헌장부인 이지함의 기골에 홀딱 반한 주인의 아내가 밤늦게 그의 방에 들어와 온갖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렸다. 그러나 이지함은 점잖게 부인을 달랬다. 그래도 교태를 멈추지 않자 인륜을 따져 나무랐다고 한다. 마침 집 안에 들어선 주인이 문틈으로 이 모습을 낱낱이 보았다. 그는 한걸음에 서경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다. 서경덕은 집주인 손에 끌려와 이 장면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 이지함이 오자 서경덕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학업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네. 돌아가게” 이리하여 이지함의 학덕은 당대에 으뜸가는 스승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서울의 명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

그가 1573년 스물여섯 살이 되었을 적에 나라에서 탁행卓行의 이름으로 늦은 나이의 그에게 포천현감의 벼슬을 내렸다. 이것은 큰 특혜였는데도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부임했다. 그가 부임할 적에는 벼룩에 짚신 차림이었다. 저녁때가 되어 그럴듯하게 밥상을 차려 내오자 새 원님은 멀거니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상을 밀어냈다. 사령은 더 거방지게 밥상을 차려 내왔다. 하지만 또 “먹을 것이 없구나”라며 밀어냈다. 밥상을 맡은 구실아치가 나와 잘못된 죄를 청하자 이렇게 말했다. “민생이 어려운데 모두 앉아서 얻어먹으면서도 절제가 없구나.”

그러고는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씩만 가져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이런 원님 밑에서 구실아치들이 감히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는 “포천 땅에서는 곡식이 적게 나니 고기를 잡아 고을 경비에 쓰겠다. 그러니 그물이나 발 같은 것을 보내 달라”고 조정에 건의했다. 하지만 조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이듬해 원님 자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 걸인청은 복지시설

만년에 또 한 번 조정에서 그에게 아산현감 자리를 내려주었다. 1570년대는 전국에 흉년이 연달아 들어 기아가 휩쓸었다. 이 무렵 그는 아산에 부임하여 맨 먼저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당시 아산 백성들은 양어를 번갈아 하여 공물로 관가에 고기를 바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임을 알고 양어장을 물어버렸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장사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늙거나 병들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특히 고을 안에 큰집을 지어 걸인청乞人廳을 설치하고 거지들을 모아 살게 하면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장사하는 법, 죄를 녹여 연장을 만드는 법 따위를 익히게 했다.

이것도 못하는 거지들은 따로 모아 짚신을 삼게 했다. 짚신 따위를 삼아 장터에 내다팔게 하여 생계대책을 세워주었다. 이렇게 몇 달을 지내니 가난한 이와 거지들은 모두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해졌다.

걸인청은 일터로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수단이었으며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복지시설이었다. 유희 인력 자원을 활용한 멋진 아이디어였다. 이를 두고 신국주교수는 농업 상업 수공업업을 통한 복지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시대 조정이나 고을 원들은 이 걸인청을 빈민구제정책으로 더욱 활용치 않고 모르는 채하였을까?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돌림병이 돌면 곡식창고를 털어 길가에서 죽을 썬어 주거나 몇 되 곡식을 나누어주는 미봉의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이다. 장기의 구제대책을 세워줄 줄 몰랐다.

아무튼 이런 원님을 백성들은 부모처럼 섬겼다. 그러나 채 1년도 못 되어 그가 죽자 고을 백성들은 친 부모의 초상을 당한 듯이 통곡했다. 어릴 적에는 형수가 지어준 두루마기를 입고 바깥에 나갔다가 거지들에게 두루마기를 벗어주고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고을 원살이를 하면서 남을 위하는 이러한 마음을 한없이 베풀 것이리라.

## 두루 기인-이인으로 불리다

이지함은 능력 있는 사람이면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깎듯이 대우했다. 그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전라도 땅에 사는 한 어부였다. 그 어부는 고기를 능숙하게 낚고 배도 잘 부렸다. 어느 때에 그가 잡은 고기를 딸이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버지께 야단을 맞는다”고 딸을 나무라며 받은 돈의 절반을 돌려주는 것을 보고 그들 식구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 뒤 그 어부를 다시 찾아보았으나 종적이 묘연하여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늘 그리워했다.

그는 같은 서경덕의 제자로 홀로 생활을 즐기며 은둔생활을 하는 서치무라는 이를 존경했고, 미천한 신분이나 재주가 뛰어난 서기에게 글을 가르치며 온갖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또한 전라도 좌수영의 한 통인이 글을 열심히 읽자, 관청의 명부에서 빼내 글을 가르치고 일가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집까지 마련해주었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지함을 기인이니 이인이니 하며 불렀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까닭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는 대지팡이 하나를 벗 삼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다가 졸음이 오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몸을 의지해 고개를 수그리고 잠을 잤다. 이런 모습으로 잠을 잘 적에는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마소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도리어 물러섰다 한다. 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았고 잠을 깨지도 않았다고 한다.

보령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다닌다면 얼마나 멀까? 그런데도 그는 보령에서 아침 일찍 한 말 밥을 지어 먹고 줄곧 걸어서 하루 이틀이면 서울에 닿았으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축지를 한다, 차력을 한다, 도술을 부린다고 수군댔다.

그 시절에는 제주도에 드나드는 길이 여간 위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작은 조각배의 네 귀퉁이에 큰 바가지를 주렁주렁 달고 세 차례나 제주도를 드나들었다. 이것은 이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과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방안일 것이다.

그의 성품은 천의무봉 그대로여서 남의 눈치나 체면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제주도에 다녀오는 길에 해남에 사는 벼슬아치인 이발李潑의 집을 찾아들었다. 며칠을 굶은 지라 몇 말의 밥을

해내오라고 소리쳤다. 밥이 들어오자 그는 수저를 제쳐둔 채 밥을 맨손으로 주먹만 하게 만들어 오른손으로는 밥을 입에 넣고 왼손으로는 반찬을 집어넣으며 순식간에 몇 말 밥을 다 해치웠다. 밤에 주인이 비단이불을 싸들고 들어와 함께 자며 담소를 나누고자 했으나 그는 한사코 혼자 자겠다고 했다.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악취가 풍겼고 이불을 젖혀보니 똥, 오줌을 그득하게 싸놓은 채 떠나버렸다 한다. 이지함이 설사가 났는지, 아니면 벼슬아치 출신이 잘사는 꼴에 눈이 시어서인지 간다온다 한 마디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 길로 그는 여수의 전라좌수영으로 갔다. 그는 수영 건물인 진남관 앞에서 겨울인데도 홑옷을 입고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로 짚신을 질질 끌며 머뭇거렸다. 문지기가 수상히 여겨 수사에게 고하자, 수사는 이지함을 짐작하고 뛰어나와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제주목사는 그의 높은 이름을 익히 들은지라, 그를 객사에 모시고 아리따운 기생에게 일렀다. “네가 만일 저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한다면 창고의 물건을 상으로 다 주겠노라.” 그날 밤 기생은 온갖 아양을 떨었으나 이지함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물리쳤다고 한다. 서경덕이 여색을 멀리한 가르침을 실천한 것인 지도 모른다.

어느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고 손수 지휘하여 몇 년 안에 몇 만 섬의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았다. 그는 이 곡식을 빈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는데, 빈민들이 떠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부여잡은 소매를 뿌리치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어느 섬에 들어가 박을 섬 가득 심었다. 박이 익자 모두 거두어서 저자에 내다 팔아 곡식을 사니 곡식이 몇 천 섬이었다. 이 곡식을 마포로 실어 날라 마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서 마포 빈민굴 한가운데 토굴을 짓고 밤에는 토굴 속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토굴 위에 나와 지냈다.

이때부터 마포 사람들은 그를 흙으로 만든 정자에 산다고 하여 ‘토정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인으로 소문난 이지함을 이웃으로 삼은 만큼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혼인날을 잡아 달라거나 점을 쳐 달라거나, 처방을 해 달라거나 하며 온갖 일을 부탁했다. 이지함은 처음에는 웃으며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다 날이 갈수록 토굴에 사람들이 들끓자 일을 다 당해 낼 도리가 없어 책 한 권을 만들어냈다.

## 토정비결은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책

한 해 신수를 보는 책, 이것이 앞에서 말한 『토정비결』이다. 토정이 만든 비결이라 하여 마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토정비결』은 육십갑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육십갑자는 방위는 물론, 시일, 나이 등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된다.

첫째로 그 해의 간지(태세라고 함)에 따라 해마다 매겨진 일정한 숫자와 나이를 합하여 8로 나눈 나머지 숫자(나머지가 없을 때는 8), 다음은 태어난 달의 수(음력으로 큰 달은 30, 작은 달은 29)와 태어난 달의 간지수(월건이라고 함)를 합하여 5로 나눈 나머지 숫자(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6), 셋째로 생일의 수(15일생이면 15)와 생일의 간지(일진이라고 함)를 합하여 3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3), 이 셋을 세 단위로 한 것이 1년 신수의 숫자가 된다. 세 숫자가 모두 1이 나왔다면 ‘1·1·1’이 되는데 ‘1·1·1’에 가 찾아보면 앞에는 1년의 운수, 뒤에는 달의 운수가 적혀 있다.

8로 나누는 것은 8의 제곱, 곧 '8×8=64'가 주역의 64괘를 뜻하며, 6으로 나누는 것은 6의 제곱 곧 '6×6=36'이 모든 방위를 뜻하며, 3으로 나누는 것은 3의 제곱 곧 '3×3=9'가 양수(홀수)의 가장 끝자리로 가장 좋은 수 9를 뜻한다. 이렇게 하여 '1·1·1'이 나왔으면 1년 운수로 '동풍해빙東風解冰, 곧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고목봉춘枯木逢春, 곧 마른 나무가 봄을 만나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운수를 잡은 사람은 빙그레 웃음이 날 것이다.

그리고 '2·2·2'가 나왔다면 1년 운수로 '청천백일靑天白日, 곧 맑은 하늘과 환한 햇볕에, 음운몽몽陰雲濛濛, 곧 음울한 구름이 확 끼었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운수를 잡은 사람은 상을 찡그릴 것이다.

그리고 달의 운수에는 '이사를 함부로 가지 말라'거나 '서쪽으로 나다니지 말라'거나 '어렵다가도 귀인이 와서 도움을 준다'거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조심을 하면 풀린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1년 운수의 내용에는 하나의 음모라 할 구절을 여기저기에 깔아놓았다. 근면과 정직과 성실과 제 분수를 실행하고 지키라고 대목대목 엮어 넣은 것이다. 보기를 들어보자. '2·2·1'의 1년 운수에 '부지안분不知安分, 곧 제 분수를 알지 못하면 반위수상反爲殊常, 곧 도리어 수상하게 된다'고 하는 따위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출세나 부자가 된다는 따위의 행운을 말하면서도 빈부나 귀만을 따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대개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만들어두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맞는다고 보아야 할까? 얼마 전에 승려였다가 환속한 어떤 이가 『운수 보는 책』을 내놓고 인생의 운명이 그 책으로 결정되는 양 선전을 해대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장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짓이라고 마땅치 못해하는 이들도 많다.

『토정비결』은 144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앞서 나온 방식에 따라 첫자리가 1에서 8까지이고, 가운데 숫자가 1에서 6까지, 그리고 끝자리 숫자가 1에서 3까지이다 보니 144항이 나온 것인데, 수많은 인종이 이 분류에만 맞게 운수가 정해져 있을까? 설령 비슷한 운명을 여러 사람이 가졌다 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변용하는 수가 있더라도 산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요, 농사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간상 모리배나 정직한 예술가들의 행동반경이나 사고형태는 다를 것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뒷세상에 이지함이 이 책을 만들 적에 너무 잘 맞으면 사람들이 일도 않고 이 책만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하여 내용을 잘 맞지 않게 뒤섞어놓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 말은 바로 『토정비결』을 보고 운수가 나쁘게 나오면 “조심하라는 뜻이야” 하고 웃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근래 한 학자가 『토정비결』의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고 하나 얼마만한 논리를 전개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지함이 민중들에게 위안을 주고 재미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엮었던 만큼 오늘의 우리도 심심풀이나 다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토정비결』은 일생의 운명을 보는 『당사주』와 함께 민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지함은 상수학(수리를 푸는 점 같은 것으로, 『주역』이 대표적인 책이다)에 밝은 학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음양학이나 도가의 글에도 정통했다. 그리하여 민중들이 서경덕을 신으로 모시듯이, 이지함 역시 민중의 우상이었다. 이런 모습은 앞에서 알아본 대로 자기의 명리를 떨쳐버리고 오직 가난하거나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애를 보냈기 때문이다.

## 가난하고 서러운 이들의 사랑을 받다

이지함의 일화 하나를 더 알아보자. 이지함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바닷가 언덕에 잡았다. 그는 조수가 자꾸 밀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바닷물이 어머니 무덤까지 침식할 것을 내다 보고 어렵게 돈을 모아 방축을 쌓았다.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무덤에 방축을 쌓는다고 비웃자, 이지함은 말했다.

사람의 힘이 미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따질 것 없이 힘이 있는 한 노력해보아야 할 것이요.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힘이 부족하다고 뒷날의 근심을 막지 않으리오.

그러고는 공력이 많이 드는데도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 한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장래를 내다본 것이요, 인간의 노력을 중시한 태도이다.

그는 벼슬을 하려 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벼슬살이를 권하지 않았다. 그의 조카들이 영의정 같은 높은 벼슬자리에 많이 나아갔을 적에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에는 내 자손이 영락하지만 먼 훗날에는 번성할 것이로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 장래를 내다본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진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뒷세상에 난리가 잦을 터이니 산과 들에서 살아라.

곧 벼슬살이를 하지 말라는 말로, 이 내용을 적은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이라는 책을 은밀히 만들어 주었다 한다. 이 책은 그 진부 여부를 떠나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위의 얘기에는 과장된 사실도 많은 것이지만 민중의 입을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지함은 이인이라기보다 처사였고 기인이라기보다 지사였다. 그렇기에 뒷날 박지원은 그를 주인공으로 한 『허생전』을 써서 세상에 알렸던 것이다. 『토정비결』도 이런 이지함의 뜻, 곧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고치고 귀천을 가리는 사회를 꾸짖으며 나태를 막고 근면을 권장하면서 민중들에게 한 가닥 위안을 주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유의해두어야 할 것이다.